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 지부교섭 속보

14호

2020.09.21.(월)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14차 지부교섭\_추가 제시안 없음]

## 추석 전 타결 불발!



### 너무 뻔뻔하다!

17일(목) 열린 14차 지부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이 또다시 빈손으로 자리에 앉았다. 15일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합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마음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부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측은 외면했다.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 중앙교섭 합의사항 수용해라!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통일요구안 2가지 (노동3권 보장, 감염병 예방)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내용이다. 쟁의기간 중 인사이동, 징계, 신규채용

금지는 그동안 사업장별로 다 해왔던 내용을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대응해 합의문서로 만든 것이다. 감염병 보호는 얼마나 필요한 요구안인지 설명이 필요없다. 중앙교섭 합의 내용 조차도 문제삼는다면 지부 사용자들과 교섭할 이유가 없다.

###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찾아간다!

추석을 넘기면서까지 교섭이 지지부진한 것이 최고 결정권자 때문이라면, 지부 투쟁계획은 사장, 오너를 직접 찾아가는 투쟁이 될 것이다. 사장, 오너가 어디 있든지 반드시 찾아가 지부교섭 요구에 대한 확답을 들을 것이다. 사측 교섭위원의 무능이 일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

14차 교섭 속기록

# 사장, 오너에게 직접 찾아가겠다!

**사 :** 교섭이 외부적인 환경 등으로 지체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못나와 죄송스럽다. 추석 연휴를 지나 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안을 준비를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노 :** TV에 1인당 100만원짜리 식사가 나오더라. 한끼 에 노동자 임금 1/3~1/4이 날라간다. 불평등이 상당히 심화됐다. 이걸 줄이지 못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지부 교섭이 그런 길을 가고자 만들어진 교섭이다. 사회적 격차, 지역, 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별교섭을 한다. 그래서 요구안을 보편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항상 대공장들이 반대한다. 여태까지 누렸던 걸 놓 치기 싫다는 의미로 들린다. 진짜 오너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도장을 찍어야 될 사람들이 안찍는다면 찾아가서 난장필 수밖에 없다. 각 지 회 대표자들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 찾아가자고 한다. 누구는 100만원짜리 먹고 어떤 노동자는 6,000원짜리 식사도 힘들어하는 사회를 바꾸려면 중앙교섭, 지부교 섭을 포기할 수 없다.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겠다. 중앙교섭 의견접근안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가?

**사 :** 감염병 내용 중 ‘피부양자 등’이라고 돼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감염자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정 상근무자로 인정하건지도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본인이 계속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장년때까지도 가야 하는지? 결국 결론을 못지었다. 중앙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지부에서는 어떻게 의견접근할지 고민 중이다.

**노 :** 피부양자는 직계가족 비롯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상 식적으로 생각하자. 감염병 완치에 2년, 5년씩 가면 나라 망하지 않겠냐? 코로나로 한달 이상 입원한 경

우 있나?

**사 :** 코로나 외 다른 감염병에도 적용된다. 피부양자 범위, 정상근무 인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보니 그렇다. 노동3권에도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을 못하게 했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아 쟁의기간이 길게 가면 회사는 신규채용, 잘못에 대한 징계도 못하는건 우려스럽다. 단서조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어렵다.

**노 :** 사측 교섭위원 굉장히 뻔뻔하다. 이전에는 중앙 교섭 타결 안돼서 제시안 못내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중앙교섭 합의안 문제삼는 게 뭐냐? 이런 문구 글자 갖고 문제제기하면 어떤 신뢰를 갖고 교섭하나?

**사 :** 중앙교섭 사업장은 합의 조항이 맘에 안들어오 지켜야 하지만 미참여 사업장은 얘기할 수 있다.

**노 :**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하고, 조합원 전출시키고 해고했다. 노동3권은 그걸 보호하지는 요구안이다. 이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노조파괴하고 싶다는 뜻이다. 쟁의 중에 조합원 전출시키나? 정기적인 신규채용, 해외파견 등 조합과 논의하여 관례적으로 해왔다. 노동3권 보장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다. 노사가 합의된 부분을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깨려고 하니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한건데, 그걸 이의제기 하니 할 말이 없다. 노사간에 정말 신뢰가 없다는 걸 느낀다. 감염병 피부양자 돌봄도 자기가 무급으로 돌봄휴가 쓰겠다는 거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중앙교섭에 다 들어오면 이런 소모적인 얘기 안 해도 된다. 통일요구안은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도 수용해야 한다. 이건 사업장 격차를 줄이는 문제다. 공직취임은 지부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다음주 목요일 보쉬 대표이사 만난다. 추석 전에 교섭은 없고, 추석 이후에 실무 통해서 교섭 일정 잡는 걸로 하자.